

#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분석\*

홍예주\*\*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육지의 타 지역과 달리 바다만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가장 큰 섬으로 한라산을 주봉으로 하여 360여개 오름으로 형성(김윤미, 김윤지, 2012)된 지역이다. 삼다의 땅, 삼무의 고장으로 알려진 제주(김순이, 김동연, 2018, p. 283) 물을 품지 못하는 현 무암으로 형성되어 척박한 기후와 농토 속에서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이국적인 생활상을 가지며 제주도민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김윤미, 김윤지, 2012; 임은정, 임은진, 2021)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다(신혜란, 권민지, 2020). 법률에 의한 제주도의 자치권 보장은 섬이라는 제한적 측면이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한다는 지리적 위치와 긍정적으로 결합되어 문화, 평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임은정, 임은진, 2021). 또한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선정되면서 제주도 전체는 자연,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박민화, 2015) 국내, 외 사람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전 부터 제주는 대안적 삶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이곳으로의 이주가 경쟁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한 양식으로 제시되며(김명진, 2018) 일반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이주 정착지가 되고 있다(신혜란, 권민지, 2020).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족한 2006년을 기준으로 이후 10년간 인구는 67,000명(12%) 증가(통계청 호남지방, 2016) 하였고 2022년 까지 증가가 보고(통계청 제주사무소, 2024)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로의 귀촌 가구는 경기,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귀농보다 10배 많아 이러한 결과는 제주 섬에서 자연과 문화를 창작 터전으로 삼겠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진선희, 2015) 제주 섬은 문화예술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국무용예술학회 제30차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 제주대학교 교수, root8905@jejunu.ac.kr

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공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문화, 문화 복지가 강조되면서 국가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으로(김미란, 2021)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2004년부터 실시한 주 5일제 근무제가 2011년 확대 시행된 후 높아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서희석, 류지원, 2012: 이시경, 조광식, 2006). 제주 지역의 경우, 이미 1998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였고 특화된 전문 문화예술공간인 제주아트센터(2020년 개관), 서귀포 예술의 전당(2014년 개관)도 가지고 있다(김미란, 2021; 김태관, 2022). 이와 함께 제주해변공연장(1995년 개관), 김정문화회관(2004년 개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0년 개관)의 생활문화중심 공연장 등의 시설과 함께 200여개 소의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며(김태관, 2022)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시에 제주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등 2016년부터 문화예술의 섬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신혜란, 권민지, 2020)해 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4) 보도자료에서는 23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6개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총 건수는 59, 621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고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모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전국 평균 87.9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17개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문화예술활동 분석에서는 제주가 174.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광주, 세종, 전북, 대구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공연예술의 경우 제주가 116.9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을 하였으며 특히 제주는 양악, 연극, 무용 장르에서 가장 높은 건수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제주 도내에는 약 480개의 문화예술단체 약 1500명의 예술가와 도립무용단이 포함된 5개의 제주도립예술단이 활동(김태관, 2022)하고 있다. 1990년 창단된 제주도립무용단(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2025)은 현재까지 도내외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의미있는 무용예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14일에는 2023 제주국제무용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제주국제무용제조직위, 2022)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제주국제무용제가 성황리에 개최(제주국제무용제, 2025)되어 세계적인 무용수와 무용을 이곳 제주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4년에는 1992년 시작된 전국무용제가 이곳 제주에서 열려 의미있는 성과(전국무용제, 2025)를 거두었으며 2025년 7월에는 제주 아시아 퍼시픽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제주국제무용제, 2025)하여 도민에게 무용예술의 경험을 제공하며 이 지역의 무용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나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보고된 제주지역의 무용과 관련된 연구로는 섬문화로 본 제주 춤의 정체성(김은미, 김윤지, 2025), 계층화(AHP)기법을 활용한 제주 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연구(양진숙, 2018),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모색(채형지, 2010), 제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 관한 연구(김미란, 2021),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의 연구(김은희, 안병주, 2011) 등이 보고되어 있어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무용과 관련된 학술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제주지역 무용 연구에 관한 발행 학술지 및 연구의 시기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제주지역 무용 연구에 관한 무용의 종류 및 연구의 대상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제주지역 무용 연구에 관한 연구의 분야 및 연구의 방법을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의 수집 과정과 현황

본 연구에서의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료는 2025년 5월부터 6월 동안 6단계(1단계 무용, 제주도, 2단계 춤, 제주도, 3단계 댄스, 제주도, 4단계 발레, 제주도, 5단계 학교무용, 제주도, 6단계 제주도립무용단)의 과정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춤, 댄스, 발레 등으로 사용, 연구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무용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주지역에는 도립무용단이 있어 본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로 활용하여 검색된 자료 1996년 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발행된 29년간의 학술연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계별 수집된 자료 중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중 연구의 목적이나 관련성이 없는 자료, 중복성이 있는 연구는 제외하는 과정을 통하여 총 25편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무용연구 흐름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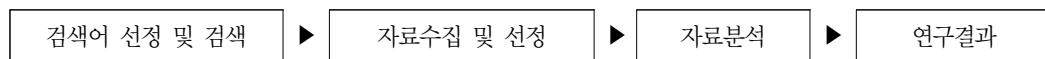
항목	연도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	96	합
1-3단계	무용, 춤, 댄스, 제주도	3	3	0	0	2	3	1	1	1	2	0	0	1	2	1	1	3	0	1	25
4-6단계	발레, 학교무용, 제주도립무용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2. 연구자료의 분류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이 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과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199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29년간 발행된 학술 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발행 학술지, 발행된 연구의 시기, 무용의 종류, 연구의 분야,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에 따라 분석(김보미, 유정애, 2014)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과 함께 미래 연구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집된 제주지역의 무용과 관련된 연구물들을 발행된 학술지와 발행된 연구의 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용의 종류는 수집된 연구물의 탐색을 통해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기타로 구분하였고 연구의 분야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분야 2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수집된 자료의 검토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학생, 직업무용수, 노인, 기타 5개 수준으로 분류하였고 연구의 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3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며 제주지역 무용의 흐름과 미래 연구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program(Ver. 24)을 활용하여 발행 학술지, 발행된 연구의 시기, 무용의 종류, 연구의 분야,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각 결과의 빈도와 활성 정도를 파악하여 발행 학술지, 발행된 연구의 시기, 무용의 종류, 연구의 분야,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에 따른 의미와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1>은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절차이다.



<그림 1> 자료수집 및 분석의 절차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무용, 제주도, 춤, 댄스, 발레, 학교무용, 제주도립무용단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6단계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각 연구물들의 연구 제목 및 연구 방법을 통해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무용의 종류는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기타 3개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기타의 경우, 무용, 춤 등으로 무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포함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학생, 직업무용수, 노인 대상 그리고 기타 5개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에는 굿, 역사, 신화/설화 대상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발행 학술지 및 연구의 시기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발행 학술지 및 연구의 연도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보고된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에 대한 발행 학술지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 총 25편은 21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무용역사기록학회지에 3편(12.0%)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에 각 2편씩(각 8.0%) 발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동작치료연구, 민주평화연구, 유라시아연구, 산업경제연구, 한국음악사약보, 움직임의 철학, 한국무속학, 구비문학연구, 정토학연구, 한민족어연구, 한국학연구, 한국민속학,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실천민속학연구, 공연문화연구, 코칭능력개발지, 이화음악논집에 각 1편씩(각 4.0%)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시기 분석 결과, 2000년 이전에는 1편(4.0%), 2000년 이후에는 24편(96%)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08년, 2019년, 2023년, 2024년에 각 3편씩(각 12.0%)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1년, 2015년, 2020년에는 각 2편씩(각 8.0%), 199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각 1편씩(각 4.0%) 연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2013년, 2014년, 2021년, 2022년 총 15년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발행 학술지 및 연구의 시기 결과

	구분	빈도(회)	백분율(%)
발행 학술지 결과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1	4.0
	동작치료연구	1	4.0
	민주평화연구	1	4.0
	한국무용연구	2	8.0
	유라시아연구	1	4.0
	산업경제연구	1	4.0
	한국무용과학회지	2	8.0
	무용역사기록학	3	12.0
	한국음악사학보	1	4.0
	움직임의 철학	1	4.0
	한국무속학	1	4.0
	구비문학연구	1	4.0
	정토학연구	1	4.0
	한민족어연구	1	4.0
	한국학연구	1	4.0
	한국민속학	1	4.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	4.0
	실천민속학연구	1	4.0
	공연문화연구	1	4.0
	코칭능력개발지	1	4.0
이화음악논집	1	4.0	
전체	25	100.0	

연구 시기의 결과	1996	1	4.0
	2008	3	12.0
	2009	1	4.0
	2010	1	4.0
	2011	2	8.0
	2012	1	4.0
	2015	2	8.0
	2016	1	4.0
	2017	1	4.0
	2018	1	4.0
	2019	3	12.0
	2020	2	8.0
	2023	3	12.0
	2024	3	12.0
	전체	25	100.0

## 2. 무용의 종류 및 연구의 대상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 하기 위한 무용의 종류 및 연구의 대상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보고된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에 대한 무용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서는 한국무용이 17편(68.0%)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구는 7편(28.0%), 댄스스포츠는 1편(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무용의 종류 및 연구의 대상 결과

	수준	빈도(회)	백분율(%)	원형차트
무용의 종류	한국무용	17	68	
	댄스스포츠	1	4.0	
	기타	7	28.0	
	전체	25	100.0	
연구의 대상	학생	7	28.0	
	관련분야 전문가	2	8.0	
	직업무용수	1	4.0	
	노인	1	4.0	
	기타	14	56.0	
	전체	25	100.0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기타 연구가 14편(56.0%)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7편(28.0%), 학생 2편(8.0%) 그리고 직업무용수, 노인대상 연구가 각 1편씩(각 4.0%)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연구의 분야 및 연구의 방법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분야 및 연구의 방법 결과는<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보고된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 대한 연구의 분야 분석 결과, 인문사회분야는 24편(96%), 자연과학분야는 1편(4.0%)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질적연구는 18편(72.0%), 양적연구는 3편(1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연구는 4편(16%)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연구의 분야 및 연구의 방법 결과

구분	수준	빈도	백분율(%)	원형차트
연구의 분야	인문사회	24	96.0	
	자연과학	1	4.0	
	전체	25	100.0	
연구의 방법	질적연구	18	72.0	
	양적연구	3	12.0	
	혼합연구	4	16.0	
	전체	25	100.0	

## IV. 논의

### 1. 발행 학술지 및 연구의 시기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발행 학술지 분석결과,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25편의 제주지역 무용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인 무용역사기록학회지에 3편씩(12.0%)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에 각 2편씩(각 8.0%) 발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섬 문화로 본 제주 춤의 정체성 ‘탐라순력도’와 ‘입춘굿 탈놀이’ 중심으로(김운미, 김운지, 2012),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 제주도 무무 비교 연구(윤수미, 2011),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연구(강지희, 2008), 계층화분석(AHP) 기법을 활용한 제주 해녀 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연구(양진숙, 2018) 등의 연구물이 무용역사기록학회지,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에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도맞이와 동김녕잠수굿의 춤사위(박영애, 2015),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김은희, 안병주, 2011), 굿놀이와 탈놀이의 제의성 고찰(양진영, 2019) 등 제주지역 춤 연구는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동작치료연구, 민주평화연구, 유라시아연구, 산업경제연구, 한국음악사약보, 움직임의 철학, 한국무속학, 구비문화연구, 정토학연구, 한민족어연구, 한국학연구, 한국민속학,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실천민속학연구, 공연문화연구, 코칭능력개발지, 이화음악논집 학술지에 각 1편씩(각 4.0%) 발행되어 다양하지만 다소 낮은 학술지별 발행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발행의 빈도는 적지만 여러 학술지에서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결과 속에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본 연구를 통하여 29년간 총 25편의 제주지역 무용 연구물은 총 21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후보학술지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시기 분석결과,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2008년, 2019년, 2023년, 2024년에 각 3편씩(각 12.0%)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5년, 2020년에는 각 2편씩(각 8.0%), 199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각 1편씩(각 4.0%)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 연구(강지희, 2008),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허남춘, 2019), 직업무용수의 자기애적 성향이 공연자신감 및 성공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윤경, 202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나타난 굿춤의 특성 연구(고유미, 윤수미, 2024) 등이 2008년, 2019년, 2023년, 2024년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5년, 2020년에는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 제주도 무무 비교 연구(윤수미, 2011), 불도맞이와 동김녕잠수굿의 춤사위(박영애, 2015), 그림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춤 문화 II(조경아, 2020) 등이 보고되었고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의식에 내재된 무용미에 관한 연구(장효순, 1996), 굿과 떼이얌에 나타난 신화 수용 연구(김정호, 2016) 등의 연구가 199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6년, 2018년, 2020년에 각 1편씩 보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11년의 시기에는 제주지역 무용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무용연구의 현실과 함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또한 29년간 총 25편의 제주지역 무용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1편(4.0%), 2000년 이후에는 24편(96%) 수행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16편의 연구가 보고되어 아쉬운 결과 속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 무용 연구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 제주지역 무용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기대와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 2. 무용의 종류 및 연구의 대상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무용의 종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한국무용 관련 연구가 17편(6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7편(28.0%), 댄스스포츠 연구는 1편(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한국무용과 관련된 연구로는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한금순, 2008),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김은희, 안병주, 2011)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타 연구에서는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사례연구

(장은정, 2017), 교양무용에 참여한 Z세대 대학생의 경험 탐색(홍예주, 2024) 등 7편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댄스스포츠 선수의 마인드 셋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김현주, 김덕진, 2019) 연구 1편만이 수행되어 29년간 총 25편의 제주지역 무용 연구는 한국무용과 관련된 연구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뮤지컬, 방송댄스 포함)으로 분류되며 신분에 따라 서민무용, 귀족무용 그리고 목적에 따라 교육무용, 사교무용, 예술무용, 치료무용, 종교무용, 오락무용 등으로 분류된다(박순자, 2018, pp. 56-57). 이 무용들은 시대별로도 구분되어 정말 많은 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차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서는 한국무용 뿐만 아니라 발레, 현대무용, 재즈, 라인댄스 그리고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무용과 함께 더 나아가 K-컬처와 관련된 연구도 적극적으로 제안된다.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굿, 역사, 신화/설화 등의 기타 연구가 14편(56.0%)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연구 7편(28.0%), 학생 대상의 연구 2편(8.0%) 그리고 직업무용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1편씩(각 4.0%)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굿, 역사, 신화/설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굿과 폐이암에 나타난 신화수용 연구(김정호, 2016), 한국무용의 에크리튀르 의미작용 사례연구(박가영, 2021),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허남춘, 2019)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제주도 칠머리 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연구(강지희, 2008),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김은희, 안병주, 2011) 등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댄스스포츠 선수의 마인드 셋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김현주, 김덕진, 2019), 교양무용에 참여한 Z세대 대학생의 경험 탐색(홍예주, 2024) 연구 2편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무용수의 자기애적 성향이 공연자신감 및 성공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윤경, 2023),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사례연구(장은정, 2017) 등 직업무용수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각 1편씩 보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산섬 제주도의 경우, 현무암으로 형성되어 험난하고 척박한 기후와 농토 속에서 밭농사와 수산업, 목축업 중심의 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토속무속신앙이 발생(임은정, 임은진, 2021)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다가 삶의 터전인 제주인들에게는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 협동이 강조된 포제, 본당향 굿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김순이, 김동연, 2018. p. 284; 박영애, 2015b)와 함께 4.3사건과 같은 제주가 겪어온 형언할 수 없는 아픈 역사(체형지, 2010)가 반영되어 굿, 역사, 신화/설화 등의 연구에 많이 집중되고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28%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 속에서 더디지만 제주지역 무용의 역할과 기능, 예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자료 보존과 전승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학생, 직업무용수, 노인 대상의 분석 결과 속에서 무용의 경우, 인간의 몸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신체와 영혼에 의한 예술(육완순, 이희선, 1992, p. 17)로 지적, 정서적, 정신적 활동이 신체 움직임과 결합되어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표현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육완순, 이희선, 1992, p. 103; Doubler, 1994, 성기숙 역, pp. 71-72)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발육기 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표현력, 감성능력 및 창의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성인과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레저와 건강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여가와 함께 치료측면

에서 무용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성과 함께 학생, 성인/전문무용수, 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통한 제주지역의 무용연구가 시도되어 예술, 교육, 여가 등 무용의 가치가 확장되길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

### 3. 연구의 분야 및 연구의 방법 결과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분야의 분석결과, 1996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29년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인문사회분야는 24편(96%), 자연과학분야는 1편(4.0%)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문사회분야에서 굿놀이와 탈놀이의 제의성 고찰(양진영, 2019), 제주도 칠머리당 영동굿의 제의식에 내재된 무용미에 관한 연구(장효순, 1996), 다랑쉬굴 4.3무용의 에크리튀르 형성과 안무가의 책임(문복주, 2024) 등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문사회분야 연구가 압도적인 빈도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로는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사례연구(장은정, 2017)만이 보고되어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제주지역 이외에서 보고되어 있는 자연과학분야의 무용관련 연구로는 한국무용 상해유발 동작의 운동역학적 분석(정경원, 김수미, 이수현, 2017), 12주간의 발레수업이 노인여성의 낙상관련 신체운동 기능 향상과 골밀도에 미치는 효과(문엘린, 2013), 발레 활동 참여가 여성노인의 노인체력, 혈중지질 및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김민교, 고수한, 2023) 등 다채로운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무용이 신체활동의 한 형태로서 신체의 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 무산소성 대사가 요구되는 생리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유정재, 남상남, 김종혁, 2007)하여 체력뿐만 아니라 신체구성, 골밀도 등에 긍정적 효과가 보고(이소은, 2024)되고 있어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과학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서도 무용에 의한 신체의 긍정적 변화와 효과를 자연과학분야에서 확인하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제안된다.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현황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질적연구는 18편(72.0%), 양적연구는 3편(1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연구는 4편(16%)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질적연구의 경우, 제주도 영동굿의 유래(한금순, 2008),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허남춘, 2019), 다랑쉬굴 4.3무용의 에크리튀르 형성과 안무가의 책임(문복주, 2024) 등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연구로는 직업무용수의 자기애적 성향이 공연자신감 및 성공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이윤경, 2023), 변이할당분석, 동태적 성장률분석, DEA, BCG Zoo를 이용한 공연예술의 경쟁력 효율성 분석(이광배, 2023) 등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연구의 경우,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연구(강지희, 2008),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김은희, 안병주, 2011)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질적연구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혼합연구와 함께 양적연구의 활성화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은 설화, 신화의 섬이며 무가는 한국의 중심(허남춘, 2013)이 되며 내륙과 구별되는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이국적인 생활상과 제주 원주민들이 형성한 독특한 문화(김은미, 김윤지, 2012)를 가지고 있어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서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가치를

탐색하며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현상을 발견, 탐색하며 개념화(김도연, 2006. p. 78) 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무용학의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무용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이해(박혜연, 신주영, 2025) 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에서도 질적연구 뿐만 아니라 양적연구의 시도를 통해 무용의 의미와 다양한 가치를 수치로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균형감 속에서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가 발전되어 이것이 문화예술 및 정책에 실질적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 흐름을 분석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제주지역 무용의 연구에 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9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29년간 총 25편 연구가 수행되었고 21개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지역 무용 연구는 한국무용연구 17, 기타 7, 댄스스포츠 1편 연구되었고 굿, 역사, 설화/신화 등과 관련된 기타 14, 관련분야 전문가 7, 학생 2, 전문무용수 및 노인대상 연구는 각 1편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지역 무용 연구는 인문사회 24, 자연과학 1편 연구되었고 질적연구는 18, 혼합연구 4, 양적연구는 3편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제주지역의 무용 연구는 한국무용 뿐만아니라 다양한 무용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되며 연구대상의 확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와 함께 양적연구의 시도로 수치를 통한 무용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연구 방향성이 제안된다.

## ■ 참고문헌

- 김도연(2006). **체육연구개론**. 국민대학교 출판부.
- 김순이, 김동연(2018). **그리운 제주풍경 100**. 다빈치.
- 박순자(2018). **교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헤민북스.
- 육완순, 이희선(1992). **무용교육과정**, 도서출판 금광.
- Doubler, M. (1994). **창조적 경험으로서의 춤** (성기숙 역). 현대미학사. (원저출판 1974).
- 강지희(2008). 제주도 칠머리당굿 춤의 삼재론적 공간특성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4, 1-38.
- 고유미, 윤수미(2024).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에 나타난 굿춤의 특성연구. **한국무용연구**, 42(4), 99-127.
- 김명진(2018). 제주도 서사에 나타난 헤테로피아적 상상. **인문콘텐츠**, 48, 137-161.
- 김미란(2021). **제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공연장 운영에 관한 연구-참여동기와 성과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 김민교, 고수한(2023) 발레활동 참여가 여성노인의 노인체력, 혈중지질 및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14(2), 93-103.
- 김보미, 유정애(2014).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3), 137-149.
- 김운미, 김윤지(2012). 섬 문화로 본 제주 춤의 정체성-탐라순력도와 입춘굿 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13, 75-107.
- 김은희, 안병주(2011).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43-54.
- 김정호(2016). 굿과 떼이얌에 나타난 신화 수용 연구-나쁜 여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연구**, 72, 183-211.
- 김태관(2022). 문화예술공간의 전문화와 제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2년 제주국제댄스포럼자료집**. 46-55.
- 김현주, 김덕진(2019). 댄스스포츠 선수의 마인드 셋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코칭능력개발지**, 21(1), 43-54.
- 문복주(2024). 다량쉬굴 4.3무용의 에크리튀르 형성과 안무가의 책임. **유라시아연구**, 21(4), 255-271.
- 문엘린(2013). 12주간의 발레수업이 노인여성의 낙상관련 신체운동 기능 향상과 골밀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가영(2021). 한국무용의 에크리튀르 의미작용 사례연구-2020년 제주 4.3 젊은 예인 춤전. **민주평화연구**, 4(2), 91-115.
- 박영애(2015). 불도맞이와 동김녕잠수굿의 춤사위. **한국무속학**, 30, 81-106.
- 박영애(2015b). **제주도 초감제 굿 춤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
- 박혜연, 신주영(2025). 국내무용학 질적연구의 역사적 발전과 함의. **한국무용연구**, 43(1), 31-53.
- 박민화(2015). **제주 향토춤의 예술적 의미와 문화콘텐츠 활용가치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희석, 류지원(2012). 문예예술회관 운영주체에 따른 성과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65-88.
- 신혜란, 권민지(2020). 제주지역성 연구-별도 공간 개념의 적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140-158.
- 이광배(2023). 변이할당분석, 동태적 성장률분석, DEA, BCG Zoo를 이용한 공연예술의 경쟁력 효율성 분석:국악, 양악, 연극, 무용. *산업경제연구*, 36(4), 605-624.
- 이시경, 조광식(2006).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1), 109-132.
- 양진숙(2018). 계층화(AHP)기법을 활용한 제주 해녀춤의 문화브랜드화 방안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5(4), 1-14.
- 양진영(2019). 굿놀이와 탈놀이의 제의성 고찰. *공연문화연구*, 39, 581-607.
- 유정재, 남상남, 김종혁(2007). 운동수행 순서에 따른 무용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14, 85-96.
- 윤수미(2011). 일본 오키나와 한국 제주도 무무(巫舞) 비교연구. *한국무용연구*, 29(2), 51-79.
- 이소은(2024). 중년여성의 한국무용 참여가 건강관련 체력 및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3(2), 452-459.
- 이윤경(2023). 직업무용수의 자기애적 성향이 공연자신감 및 성공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40(3), 51-62.
- 임은정, 임은진(2021). 제주도 문화예술교육 실태연구: 제주민요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9(2), 53-70.
- 장은정(2017).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사례연구. *동작치료연구*, 1(2), 43-56.
- 장효순(1996). 제주도 칠머리당 영동굿의 제의식에 내재된 무용미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4(1), 109-133.
- 정경원, 김수미, 이수현(2017) 한국무용 상해유발동작의 운동역학적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4(3), 73-84.
- 조경아(2020). 그림으로 읽는 조선시대의 춤 문화 II: 관아공간의 춤 그림. *무용역사기록학*, 59, 171-202.
- 채형지(2010). *제주도 무용문화의 소멸적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방안모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대학원.
- 한금순(2008). 제주도 영동굿의 유래:연등회에서 영동굿으로의 변천. *정토학연구*, 11, 463-502.
- 허남춘(2013).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연구. *탐라문화*, 44, 49-82.
- 허남춘(2019). 제주도 약마희 신고찰. *구비문학연구*, 54, 139-172.
- 홍예주(2024). 교양무용에 참여한 Z세대 대학생의 경험 탐색.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4(4), 115-123.
- 통계청 제주사무소(2024).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통계청 제주사무소*. <[https://kostat.go.kr/board.es?mid=a50301010100&bid=5148&list\\_no=434449&act=view&mainXml=Y](https://kostat.go.kr/board.es?mid=a50301010100&bid=5148&list_no=434449&act=view&mainXml=Y),

- 2025.06.20).
- 통계청 호남지방(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변화를 읽다-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통계청  
호남지방. <[https://kostat.go.kr/board.es?mid=a50301010600&bid=5148&act=view&list\\_no=354804](https://kostat.go.kr/board.es?mid=a50301010600&bid=5148&act=view&list_no=354804). 2025.06.20.>
- 제주국제무용제(2025). “2025 JEJU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제주국제무용제.  
<[jidance.co.kr/index.php](http://jidance.co.kr/index.php), 2025. 06. 20>.
- 제주국제무용제조직위(2022). 2023 제주국제무용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23.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2025). “도립무용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https://www.jeu.go.kr/jejuculture/index.htm>, 2025. 06. 20>.
- 전국무용제(2024). “수상내역”, 전국무용제. <<https://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winner>, 2025. 06. 20>.
- 진선희(2015. 04. 30). “제주살이 안녕하십니까, (6)빈집을 채우는 예술가들”, 한라일보. <[www.ihalla.com/read.php3?aid=1430319600498205299](http://www.ihalla.com/read.php3?aid=1430319600498205299), 2025. 06. 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4). “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board/view/4057?cid=1808926](http://www.arko.or.kr/board/view/4057?cid=1808926), 2025. 06. 17>.

논문투고일 2025. 08. 13.  
심사일 2025. 08. 21.  
심사완료일 2025. 09. 03.

##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Dance Research in Jeju

**Hong, Yeju**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nalyzed dance research trends in the Jeju region over the past 29 years, finding that a total of 25 studies were conducted, published in 21 accredited and candidate journals of KCI. Second, the studies focused on 17 Korean dance, 7 others dances, and 1 dance sports. The research subjects included 14 others, 7 experts, 2 students, 1 professional dancers, and 1 elderly participant. Third, 24 studie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1 was in the natural sciences. Research methods included 18 qualitative, 4 mixed-method, and 3 quantitative studies. Future research is proposed to explore various forms of dance studies,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subjects, and confirm the meaning and value of dance through quantitative and natural science approaches.

**Keywords:** Jeju Region(제주 지역), Dance(무용), Research(연구), Current(현재), Direction(방향)